

새 생명의 기쁨을

너는 사랑득

Summer
2021 VOL.82

Korea Marrow Donor Program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

2021년 6월 14일 발행

발행인 신희영

편집책임 이양화

편집 장진호, 지수희

발행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TEL. 02-737-5533

FAX. 02-737-5336, 7

E-mail : kmdp@kmdp.or.kr

홈페이지 : www.kmdp.or.kr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및 이식 실적

03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하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04

KMDP NEWS

1)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선정

06

2) 다른 사람들에게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추억이다
(KMDP 기자단 1기 윤지현)

07

3) 한마음혈액원과 함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10

4) KMDP 온라인기자단 2기를 소개합니다

12

KMDP 안내사항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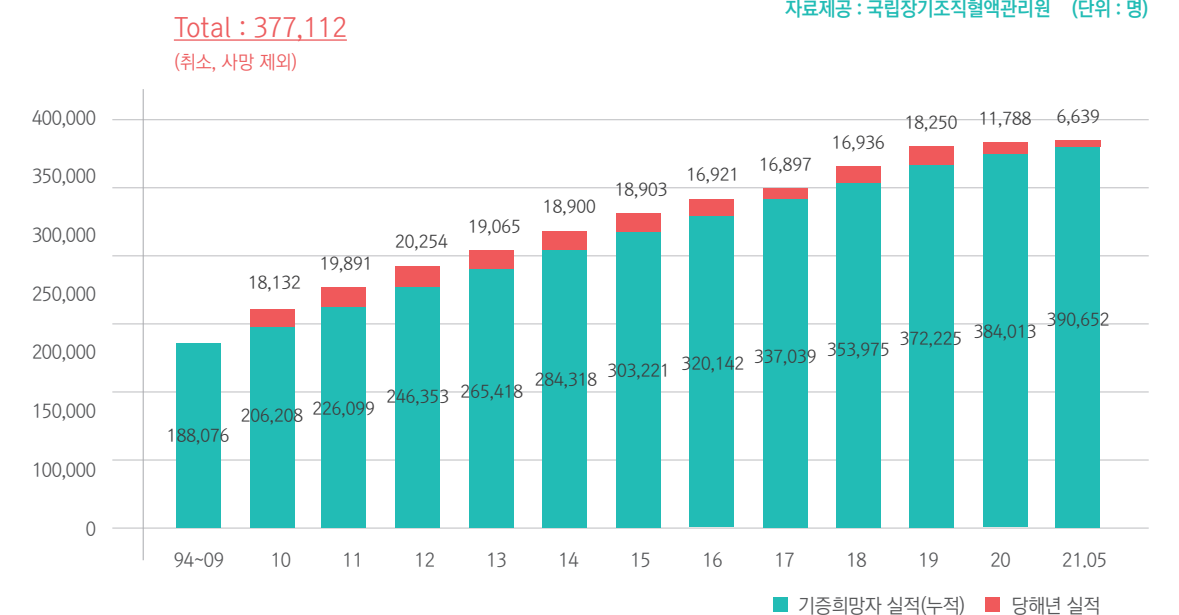
2021 조혈모세포기증 인식개선 공모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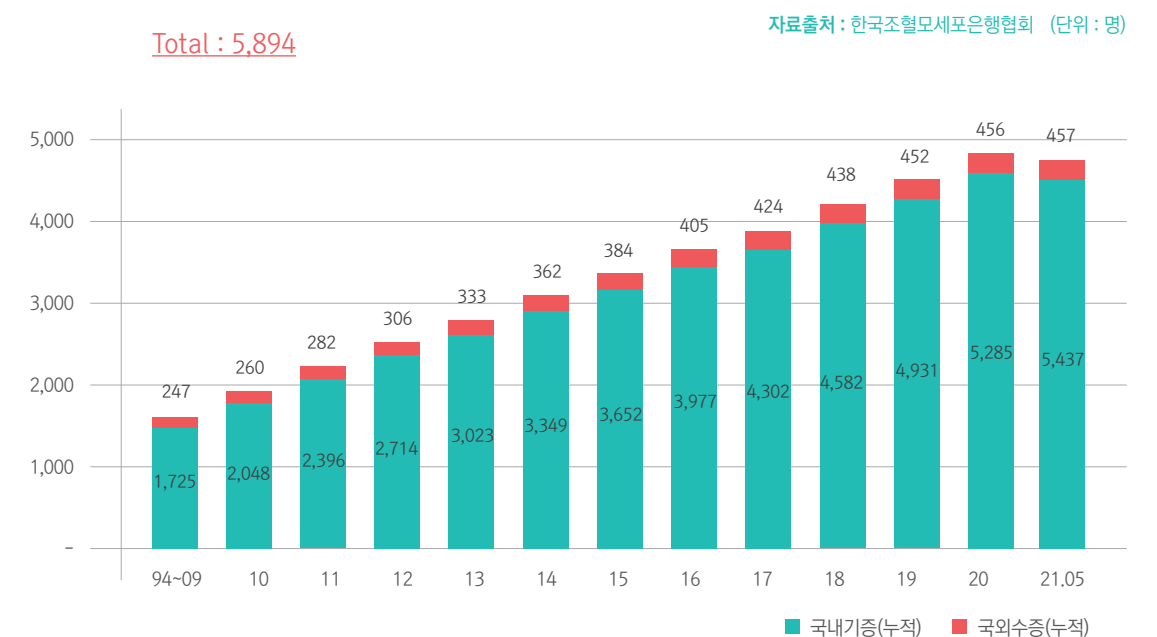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및 이식 실적

1.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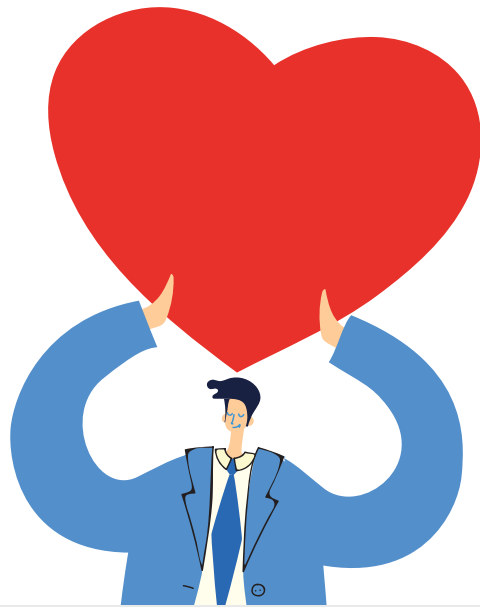


2.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실적



KMDP와 함께 걸어 온 푸르덴셜의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캠페인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2020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



2019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2006년 12월 푸르덴셜생명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재단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자 시작한 2007년 푸르덴셜생명 전사 체육대회 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 및 기증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200명이 넘는 푸르덴셜인들이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하였으며, 이 중 23명은 실제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나누는 기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기증한 푸르덴셜인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푸르덴셜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 <푸르덴셜 착한 걷기 프로젝트>,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며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푸르덴셜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연령(만 18세~40세)인 대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를 늘려 기증이 절실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모전 기간 동안 240여명의 대학생 참여자들이 참여하여 116회의 캠페인을 통해 63,790여명의 캠페인 참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캠페인과 더불어 진행된 기증희망등록부스에서 3,869명의 기증희망등록자를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참여한 대학생들은 공모전 활동을 통해 생명 나눔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으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부스 채혈은 물론 대학생들에게 직접 자문을 해주시는 등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습니다.



2019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봉사 활동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푸르덴셜 착한 걷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참여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걸음을 기부하고 목표 걸음을 달성할 경우 기부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3주간 푸르덴셜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 결과 조혈모세포 기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응원하는 마음들이 모인 기부금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도움을 통해 난치성 혈액암 환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연중 상시로 '푸르덴셜 볼런티어 데이'를 운영하여 푸르덴셜인이 가족, 고객들과 함께 자유롭게 봉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8년과 2019년에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활동과 마스크 제작 활동에 임직원 및 가족 361명이 참여하여 조혈모세포 기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완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히크만 주머니와 환아를 위한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함께 진행해 온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어 뜻 깊었으며, 앞으로도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대외 인식개선 및 기증자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치료비 및 희망박스 지원

(대한적십자사 2021년도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선정)

조혈모세포 2차 이식 및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 저소득층 환자 (지원금액 : 3,000,000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이식을 받은 환자 혹은 예정인 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해당자

■ 2차 이식 환자 (지원금액 : 2,000,000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이식을 받은 환자 혹은 예정인 분으로 1차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하여 2차 이식 진행 환자 (DNI 이식 포함)

■ 공통 사항
- 2021년 이후 이식(재이식) 대상, 2021년 1월 30일 이전
- 신청 및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충진팀 (02-737-5533, 내선 110)
- 저소득층 환자가 2차 이식 진행 시, 중복지원 가능 (DNI 이식의 경우 제외)
- 본 사업 전달자가 기부한 헌혈기부권 모금액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합니다.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혈액암 환자분들의 원지를 기원합니다.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 대한적십자사

희망박스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에게 **희망박스**를 지원합니다.

대상 |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300명 (2021년 1월 이후 이식 환자, 이식 후 2주 이내 지원)
구분 | 히크만주머니 2개입, 항암제니 2개입, 항암스킨케어 제품 (14만원 상당)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충진팀 (02-737-5533, 내선 3)

※ 희망박스의 기증사건을 후원하여
아래 연차별로 사건의 보내주신 분께
추가로 물품을 지원합니다.
보내실 곳 | 메일 org@kmdp.or.kr
전화 010-6823-6210

우리협회는 대한적십자사 2021년도 헌혈기부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에게 치료비 및 투병물품을 지원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부권은 헌혈 후 기념품을 기부권으로 선택하면 혈장성분헌혈은 3,500원, 전혈헌혈은 5,000원, 혈소판성분헌혈은 6,000원,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8,500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진 기부금은 긴급지원, 건강증진, 생명보호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해당 사업에 지원되며, 우리협회는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치료비 및 투병물품 지원사업으로 건강증진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총 7천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히크만주머니와 항암제니, 항암스킨케어 등의 투병물품을 담은 '희망박스(14만원 상당)'를 전달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른사람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게겐 특별한 추억이다.

글 | KMDP 기자단 1기 윤지현



2020년 7월 26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한 달에 한 번 마로니에 공원에서 조혈모세포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몇 년째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분들은 배우 김명국 님과 김명국 님의 아내 박귀자 님입니다. 이 두 분은 조혈 모세포 기증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이 기증 서약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부부의 자녀도 백혈병을 앓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기억하기 위해 또다른 생명이 살 수 있는 조혈모 세포 기증을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지금도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이다.

두 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3월, 아이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귀자님은 그 당시 아이를 생각하며 웃음 속에 눈물을 참았습니다. 백혈병은 대부분 항암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사가 와서 약에 대해 말을 해주는데 부작용도 함께 알려줍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마음에 박히는 법입니다. 박귀자님은 부작용에 대해 들으면서 굉장히 아프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치료 받을 때마다 부작용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동안 어렵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행복한 기억도 많습니다. 아이가 세발자전거에서 두발자전거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김명국님은 퇴근하고 오후 2시쯤 귀가했는데요. 해가 짙은 날이었지만 아파트 주차장을 한 시간 넘게 돌며 아이의 두발자전거를 잡아주었습니다. 이날 아이는 땀을 흘리면서도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박귀자님에게 있어 이 날은 기억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 날 김명국님은 아이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환아들은 성취감을 느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두발자전거를 알려줌으로써 무언가를 해냈을 때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중인 김명국님과 박귀자님

박귀자님은 네 가족이 함께 드라이브하고, 아이를 위해 시장에 가서 장을 봤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병원 근처에 크라운베이커리가 있었는데, 통원치료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들러 멸균우유를 먹던 모습에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평안하게 치료받고 왔다는 마음에... 박귀자님의 기억에는 아직도 아이가 빨대로 우유를 먹는 모습이 선합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행복한 추억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김명국님은 아이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면역력이 약해 많이 다니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에게 사소하고 보통인 일상이 아픈 아이의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은 현재 환아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국님은 “우리 아이 때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국가적인 지원이 더 있어야 한다”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못해 제대혈을 이식 받았으며, 치료를 위해 무균실에 입원하고, 또 회복을 위해 입원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지금도 병을 앓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환자 가족 뿐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그리고 실제 기증까지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박귀자님은 “아이들은 치료를 받는다고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며 몇 년 동안의 외래치료로 경과를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 항암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부작용 치료 역시 오래 걸린다. 부작용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평생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순수하게 암에 대한 치료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위한 치료비까지... 근데 이것을 한 가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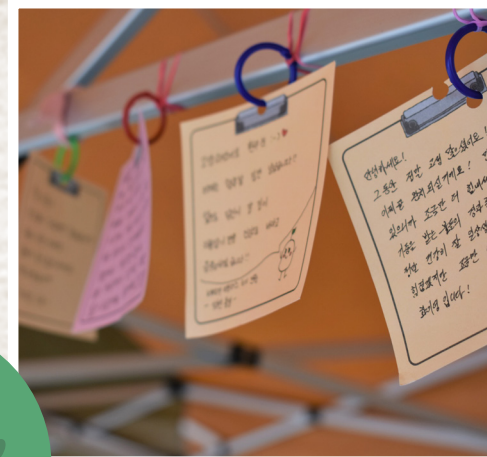
두 분은 조혈모세포 이식과 소아병동이 사라지는 세상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비혈연간 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2만분의 1이기 때문에 맞는 기증자를 찾기 어려우며, 치료 과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혈액암의 마지막 치료 방법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우리나라가 따뜻한 가족사회가 되어 마음을 열고 생명 나눔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귀자님이 환아의 가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집 걸러 한 집이 환우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환우 가족에게 ‘힘들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환우 가족들은 ‘힘들지?’ 한 마디면 정말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 한 번 잡아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국님은 “힘들고 지칠 때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서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항상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현재 환자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하고도 힘찬 응원 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상일 지라도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이하 협회)를 포함한 4개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기관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기관 한마음 혈액원과의 업무 협약으로 작년 7월부터 헌혈카페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림점을 시작으로 역곡점, 영통점, 수원점에 이르기까지 11개월 동안 현장에서 도움주신 간호사분들과 등록에 동참해주신 헌혈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장진호 팀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헌혈카페 신림점

Q1. 어떤 이유로 헌혈카페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작년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단체 캠페인이 불가함에 따라 모든 등록기관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한마음혈액원의 적극 협조로 7월부터 헌혈카페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헌혈카페로 방문하는 헌혈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안내하여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기증 동의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헌혈카페에서의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Q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 단체 캠페인과 개별 캠페인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특히 헌혈자를 대상으로 기증신청을 받았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단체 캠페인의 경우, 짧은 시간동안 많은 기증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교육 시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개별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후 등록 취소 및 철회 가능성이 높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개별(인) 캠페인의 경우, 캠페인을 진행하는 전체 소요 시간에 비해 많은 분들을 모집하는 것은 어려우나

일대일 교육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증 동의율이 높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혈모세포 기증은 성분헌혈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헌혈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기증

방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증희망등록까지 이어질 확률이 헌혈 무경험자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것은 등록

기관으로서 매우 값진 기회입니다.



Q3. 말씀을 들어보니 헌혈자 중심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이 어떤 의미인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반복해 기증희망자 모집 사업은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확진자 수의 증가로 혈액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 비상연락을 받고 도움 주시기 위해 와주셨던 많은 헌혈자분들, 외출을 꺼리고 피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헌혈자이기 때문에 예약 날짜에 방문하여 헌혈하는 분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헌혈 전후로 한시적으로 실내에서 다과 섭취를 금하는 지침에도 싫은 내색없이 따라주셨던 헌혈자분들과 만나며, 그 현장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 순간 감동이었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며 헌혈자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헌혈하고 귀가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셨던 헌혈카페 간호사님들, 모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달이면 한마음혈액원과 함께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와 함께 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으로 2,096명이 소중한 생명의나눔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헌혈사업과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위해 함께 도움주신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간호사님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KMDP 온라인 기자단 2기를 소개합니다.

4월 3일 토요일, 비가 오는 늦은 봄에 우리협회의 대회의실에서 KMDP 온라인 기자단 2기의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2기째를 맞이한 [KMDP 온라인 기자단] 11명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전달은 물론, 기증 및 이식조정과 관계된 협력기관 관계자, 기증자와 환자(지원단체)의 인터뷰 그리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둘러싸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한 흥미로운 콘텐츠 등 다양각색의 주제로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권예린



김나연



김민지



김희진



문서연



배유진



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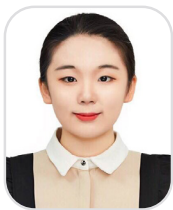
윤아희



이경림



정나해



최숙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다음의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 ① 저체중(남:50kg / 여:45kg 미만)
 - ② 빈혈, 고혈압, 저혈압
 - ③ 간 질환, 간염, 성병, 결핵
 - ④ 지난 1년 안에 2회 이상의 발작 경험이 있는 간질
 - ⑤ HIV 감염 또는 에이즈(AIDS)
 - ⑥ 조절이 안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의 천식
 - ⑦ 각종 악성종양
 - ⑧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
 - ⑨ 심장 발작, 심혈관 우회로 수술, 기타 심장병
 - ⑩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한다.
- ※ ③④ 항목은 현재 질병이 없고 과거 1년간 기왕력이 없어야 하며
⑤⑥⑦⑧⑨ 항목은 현재 질병이 없고 과거 어느 시점에서도 기왕력이 없어야 함.



기증희망등록 절차: 우리협회를 비롯한 등록기관 방문

▶ 조혈모세포 기증 상담 ▶ 유전자형 검사를 위한 혈액샘플 3mL 채혈 ▶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작성 ▶ 기증희망등록 완료



개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17, 2층 (평일 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단체: 유선문의 02-737-5533 안내 2, 기증증진팀 모집담당자 (2인 이상 등록희망 시 전국 출장방문)

개인정보 최신화

원활한 기증을 위해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다면 협회로 반드시 변경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치 환자가 나타나 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연락을 드릴 때,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연락이 지연되면 환자는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협회 홈페이지 혹은 유선연락으로 꼭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737-5533 안내 2 (기증증진팀 모집담당자)

기증의사 유지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의 자유의사로 진행되지만 일치 환자가 나타나고 최종 동의한 후에 기증의사를 반복하게 되면 환자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조혈모세포 기증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

조혈모세포 기증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를 풀고 혈액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기증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자원봉사를 통해 혈액암 환우에게 투병 중 요긴하게 쓰이는 히크만주머니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희망자에 한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도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 방법

- 일 정 : 6월~10월, 월 1회 진행 예정 (회차별 최대 8명까지 모집)
- 대 상 :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 장 소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대회의실
- 신청 안내 : 02-737-5533, 안내 3 유선신청(8명 이하 단체신청 가능)
- 유의 사항 : VMS 봉사시간 3시간 인정
(조혈모세포 기증 교육 1시간,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 2시간)



2021년 제20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기념

2021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공모전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처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헌혈처럼 이루어지는 조혈모세포 기증이지만
2만분의 1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확률을 뛰어 넘어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혈액암 환자가 나타났을 때에 가능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누어 준 이야기
기증을 약속한 기증희망자의 설렘 가득한 이야기
조혈모세포를 나누어 준 기증자에 대한 감사함 가득한 이야기 등등

당신의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를 망설이는 분들께는 힘이 되어주고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께 새 생명의 희망을 나누어 주세요.



공모 주제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이야기 모두

공모 자격

- ① 조혈모세포 기증자
 - ②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예정자 포함)
 - ③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보호자 포함)
- ※ 우리협회를 통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거나
기증희망등록(예정)을 한 분, 이식 받은 환자(보호자)에 한함
※ 공모 자격 확인 : 02-737-5533 (안내 2, 3)

공모 일정

공모 기간 : 2021년 6월 21일(월) ~ 8월 1일 (일)
수상작 발표 : 8월 4주차 (예정)
시상식 : 9월 3주차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 : <http://www.kmdp.or.kr>
이메일 : kmdp_contest@naver.com
02-737-5533, 안내3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공모 분야 및 작품 규격

부문	작품 규격
동영상	AVI, MP4, WMB 파일, 30초~5분, 100MB 이하
웹툰	JPG 혹은 PNG 파일, 8컷 이상, 완결된 스토리 라인, 20MB 이하
수기	HWP 혹은 DOC 파일, A4용지 2~3장 이내, 손 편지 가능
그림	크기 무관, 손 그림과 컴퓨터 그래픽 작업 모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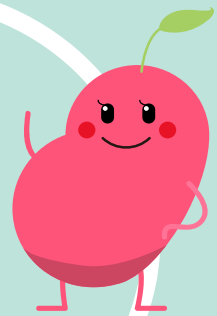
시상 내역 총 상금 600만원, 28명 (보건복지부장관상 1명 포함)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동영상	1명, 50만원	2명, 30만원	4명, 20만원
웹툰	1명, 50만원	2명, 30만원	4명, 20만원
수기	1명, 30만원	2명, 20만원	4명, 10만원
그림	1명, 30만원	2명, 20만원	4명, 10만원



조혈모세포 기증자 모임 '징검다리'

‘징검다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한 분들의 모임이며
기증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지역별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페이스북 모임 '징검다리' 검색

(2) 네이버 밴드 '징검다리' 검색

■ 가입 문의 : 아래 지역별 동호회 총무 혹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 서울·경기 총무 : 박철희 010-2620-0079

- 대전·충청 총무 : 임재영 010-9421-5936

- 부산·울산·경남 총무 : 이호영 010-8889-5723

